

“

1) 사랑의 계명과 생태계 보호

2) 생태계 보호를 통한 이웃 사랑

3) 이웃 사랑의 계명을 생태계 보호를 통해 실천합시다

”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습니까? 생태계 파괴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목숨까지 잃으며, 기후 난민이 되는 이때, 우리는 공동의 집 지구를 돌봄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일 것을 호소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에 끼치는 환경 파괴의 비극적 영향을 해결하고자 쉽 없이 노력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십니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도 이 노력에 초대하십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의 상황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더 의지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황과 목소리에 관심을 두고 행동해야 비로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1 고통받는 피조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공동의 집 지구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2 온 인류가 한 가족임을 의식합시다.

“우리 인류가 공통된 기원을 지니고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미래를 함께한다는 의식”(회칙 「찬미받으소서」 202항)을 가지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보다 타인을 향해 움직이는 능력을 키웁시다.

3 언제나 검소하게 생활합시다.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것을 절제하며,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에 만족합시다.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자주 되새깁시다.

4 하늘과 물과 땅을 깨끗하게 돌봅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모든 종류의 버릴 것을 줄이고, 하늘과 땅과 물을 더럽히는 모든 활동을 줄이며 더 나아가 없애 나갑시다.

5 기후 난민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기후 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피해를 당한 가난한 나라의 기후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준비를 해나갑시다. 필요한 때에 난민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돌보십시오.

6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듭시다.

물건을 만들고 이용하고, 재사용하는 방식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데 힘을 기울입니다. 산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압박합니다.

7 지구와 약자를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인을 선택합시다.

공동의 집 지구에서 가장 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는 데 힘쓸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를 막는 우리나라를 만들어 갑시다.